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5주】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0(통43).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

♠ 공동기도 .....

자비하신 하나님, 한해의 새로운 절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시간의 은총 앞에서 손이 부끄러워지는 우리 들입니다. 감사하며 값지게 살자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불평과 게으름 으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주님, 다시 한 번 우리 삶의 바른 목표를 분명 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꾸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실거리며 연약한 자 앞에서는 눈을 부릅뜨는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릇되게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휘둘리는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든든히 붙 잡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 위로의 말씀 ..... 마5:3,4 .....

♠ 교 독 문 ..... 84. 히브리서11장 .....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대표기도 ..... I. 고정환 학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 양 ..... 454(통508). 주와 같이 되기를 .....

성경봉독 ..... I. 마4:1-11 ..... 안 현 학생

II. 시23:1-6 ..... 박찬정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광야를 바꾸라 ..... 김재홍 목사

II.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 찬 송 ..... 484(통533).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쉽게 낙심하고 외로워 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인생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경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소액 대출 사업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강사 : 강명순 목사	기도 : 노순옥 권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한성건 선생 한완식 장로	최보미 학생 윤성종 집사

<b>7월</b>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임주빈 박혜경 최현옥 김정애
	헌금위원	김인걸 박성실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이스라엘의 존엄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영적 행위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성가신 일이다. 우리 민족의 존속 자체가 하나의 '키두쉬 하셈(kiddush hashem)이다. 우리는 절박한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 정상(正常), 안전, 평온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다. 동화(同化)하는데 이끌이 난 민족이었다면, 유대인들은 근대 민족들의 이름이 알려지기 훨씬 전에 이미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견디면서 우리의 본질을 영원히 남아 있게 하려는 소중한 뜻을 품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듯이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자살이요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짐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유다이즘은 동지(ally)는 있지만 대리자(substitute)는 없다. 유대의 신앙을 이루는 것은 하느님께 예속됨, 토라에 예속됨, 이스라엘에 예속됨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과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이미 그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목격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느님의 약속의 신비한 힘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시편 137)고 한 약속을 지킨 사실이다. 그 심중(心中)에 시온을 향한 사랑이 죽어 버린 유대인은 만인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말라버린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여 투덜거렸다. 그들의 혼은 메말라 버렸고 아무 것도 없었다. 먹을 고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뿐이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다. “우리와 아이들과 가축을 모두 말려 죽이려고 애집트에서 끌어 내왔느냐?” 그러나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예배하고 났을 때, 곧 하느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고 떠나시기로 결심하면서 한 천사에게 그들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만일 당신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여기를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분에게 버림을 받느니 차라리 광

야에 남으리라. 아마도, 이것이 우리 역사의 비결일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체험은 탐색하여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찾아내신 것이다. 유다이즘은 하느님이 인간을 찾으심이다. 성경은 하느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가신 기록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사랑보다 하느님의 이스라엘 사랑에 관한 기록을 더 많이 읽는다.

우리가 하느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 선택된 하느님이라는 개념은 없다. 다만 선택된 백성이라는 관념이 있을 뿐이다. 선민(選民)이라는 관념이 여러 민족에서 하나를 차별 대우하여 특별히 우대한다는 뜻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뿔뿔한 백성”이란 말은 하느님이 한 백성에게 다가오시어 선택하셨다는 뜻이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그 민족에게 무슨 장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하느님과 맺는 관계다.

적대감과 학대에 시달리고 쫓겨다녔지만, 우리네 조상은 끊임없이 유대인이 된 것을 기뻐했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의 운명은 참으로 선하고 우리의 분깃은 참으로 즐겁고 우리의 유산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무엇이 이런 느낌을 불러일으킨 원천이었는가?

영원불멸이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것이다. 유대인은 마지막뿐 아니라 처음도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우리는 대단히 드물고 값진 의식(意識), 즉 우리가 공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물려받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텅 빈 시간 속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절실한 불안과 염려로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없다. 우리는 과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무엇이 될 것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한다. 우리는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역사의 시계 태엽을 감는 중이다. 우리는 처음을 기억하기에 마지막을 믿는다. 시나이와 하느님 나라, 이 두 역사의 극(極)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 다친 새를 위하여

늦은 저녁 숲에 / 날개를 다쳐 돌아오는 새 있다  
무리에서 저만치 처져서  
어느 지역의 하늘을 떠돌다 오는지  
꺼져가는 석양이 아쉬워 / 별 가까운 먼 하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지 / 절름거리는 날갯짓으로  
별빛 한 가닥 물고 오는 새 있다  
밤새 새는 / 부서진 깃을 다듬어  
새로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지  
숲은 / 쓰린 달빛으로 수련거리던 것을...  
숲에 가보라 새벽 / 새는 그새  
해뜨는 쪽으로 높이 날아오르고  
높이 나는 새의 날개깃엔 / 언제나 핏빛이 돌아  
아침해 저리 고운 것을  
보라 새가 떠난 자리엔 / 상처받은 자만이 부를 줄 아는  
굽디 고운 노래가 / 숲을 흔들며 깨우고 있다

- 복호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조문규 진정숙 곽상준 최경미 김중수 이순정 김지호 박지인 방민  
 배근수 김금순 안정숙 이광용 형인순 이한림 김명희 임영 정경례  
 정미경 허호범 박성실 박효선 방준 허신열

###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김명순 이교영 이동천 서정순 정완수 김재광 정원석  
 김현영 왕수명 권순 윤정화 김지현 김지은 한성건 박상규

### 감사헌금:

정현창 고재중 윤주원 최윤선 김정민 김재흥 정복순 전세종 박남순  
 전성오 오정숙 우중학 권채영 한훈식 무명5

### 녹색꿈 헌금:

고유비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장혜숙	김정섭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박정숙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문복순	김경수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희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김필순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정옥영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송양진	김혜권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방극숙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교회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특강** : 오늘 오후 집회는 강명순 목사님(신나는조합 이사)을 초청하여 ‘소액 대출사업’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냉난방헌금** : 오늘 예배 중에 냉난방헌금을 봉헌합니다.
3.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7월 예수포럼이 우리교회에서 6일(월) 오후 6시에 열립니다. 강사는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입니다.
4. **시국기도회** : 기독교시국기도회 및 시민문화제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5. **청파산악회** : 11일에 과천대공원 삼림욕장으로 산행을 갑니다. 가실 분들은 대공원 분수대 앞으로 10시까지 모이시길 바랍니다.
6. **쿨 서비스** : 무더운 7, 8월은 예배 때 복장을 다소 가볍게 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냉방을 덜 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7. **신앙실천** :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계절입니다. 이왕 흘리는 땀, 남을 섬기며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곡상준 최경미 (다음 주 : 박병구 김기성)

### < 교회학교 여름행사 안내 >

- 아동부 여름 캠프 : 7월 26일~29일, 홍천 은현수련원
-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 7월 31~ 8월 2일, 인제 원대리교회
- 청년부 여름 농활 : 8월 6일~9일, 천안 단비교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